번역학연구
2012년 가을 제13권4호

역자후기를 통해 본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 연구*
—번역사회학적 관점—

김 영 신
(안양대)

1. 서문

본 연구의 목적은 번역사가 생산한 담론을 통해 번역사 자신의 눈에 비친 번역이라는 행위(activity)와 행위의 주체(agent)를 조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번역에 대한 기존의 번역학자의 정의, 혹은 사회의 일반적 인식에 관한 연구와는 차별화될 것이며, 오히려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self-image)에 관련한 연구가 될 것이다.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가 노출될 수 있는 담론의 장으로는 여러 공간이 있겠지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역자후기와 번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 인터뷰 기사이다. 특히 역자후기는 도착어 텍스트 내에서 번역사가 합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텍스트로 간주되며, 번역사가 저자가 되는 공간이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32-A00211).

www.kci.go.kr

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독특한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 번역학에서 새로운 연구 조류로 주목받고 있는 번역사학(translator studies), 번역사의 가시성(translator visibility)과 직결되는 연구주제이다.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이라는 학문 용어가 처음 등장한 1970년대 이후 번역학은 지난 40여년 동안 신생 학문 분야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동안 번역학의 연구 경향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 왔는데, 번역의 결과에 학문적 관심을 두느냐 아니면 번역의 과정을 연구하느냐로 대별된다. 전자는 결과지향적(product-oriented) 연구로, 후자는 과정지향적(process-oriented) 연구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 2가지 연구 지향, 즉 결과지향적 연구와 과정지향적 연구의 공통적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정작 번역과정에 참여하여 번역문을 생산하는 번역사들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다는 점이다(Dam & Zethsen 2009). 물론, 번역사에 대한 관심이 학계에서 그동안 완전히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번역사에 대한 관심은 과정지향적 연구의 범주내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번역사의 작업도중 두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추적하는 TAP(Think Aloud Protocol) 연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지과정 중심의 연구 또한 번역사를 일종의 “투명체(transparent medium)”나 “비인격화된 블랙박스(dehumanized black box)”로 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Sela-Heffy & Shlesinger 2008: 81).

따라서 그동안 학문적 관심의 영역 밖에 머물러 있었던 번역의 주체, 즉 번역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필요성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선도해온 체스터만은 번역학의 기초를 제공한 홈즈(Holmes)의 번역학지도에서도 번역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며, 번역사는 학문적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한다(Chesterman 2009). 그는 “(인간) 번역사에 관한 모든 연구는 적어도 모든 번역물 뒤에는 실제로 번역사가 존재한다는 것, 즉 텍스트의 뒤에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여야 한다”(Chsterman 2006: 13-4)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번역사에 대한 연구 조류를 번역학(translation studies)과 대별되는 번역사학(translator studies)으로 명명함으로써 학문적 연구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체스터만은 또한 번역사에 대한 관심을 최근 몇 십년간 발견된 연구 조류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

www.kci.go.kr

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 지난 십 여 년 간 번역학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조류가 발견되고 있는데, (번역물에 관심을 두는) 번역학 연구에서부터 (번역사와 그들이 내린 결정에 관심을 두는) 번역사학 연구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그중 하나이다(A number of trends can be distinguished in translation studies over the past decade or so. One is the broadening of interest from *translational studies* (focusing on translations themselves) to *translatorial studies* (focusing on translators and their decisions)). (Chesterman 1998: 201)

위의 인용문을 보면 학계의 관심이 과거 번역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오늘날에 와서는 번역사와 이들이 작업과정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한 연구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번역사에 대한 관심은 번역사의 가시성(Venuti 1995; Venuti 1998)이라는 주제와도 부합한다. 베누티는 영미문화권을 예로 들면서, 번역사는 비가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들 문화권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번역은 "유창한(fluent)" 번역, 번역 같지 않은 번역이기 때문이다(Venuti 1995: 1).

여기에서 본 논문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점은 그동안 주로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번역사의 텍스트내에서의 가시성은 더욱 확장되어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social visibility)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 안에서의 번역사, 사회적 주체로서의 번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번역사의 지위, 근로조건, 정체성, 대중적 이미지/자기 이미지, 역할 인식, 사회적 역학 관계가 연구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1] 그동안 언어학 전통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번역학 연구가 사회학 분야의 이론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이 분야의 이론적 토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은 번역학의 연구 지평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Thomson-Wohlgemuth 2004; Sela-Sheffy

1) 학문적 연구와 별도로 일반 독자의 입자에서 번역사의 가시성은 제고된 듯 하다. 국내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디어를 통해 작가 못지 않은 인지도를 누리는 번역사도 존재하며, 번역사들은 다양한 통로, 예를 들어 언론 매체, 연구 논문, 인터넷 자료, 번역 휴기, 저서 등을 통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가시성을 보여주고 있다.

www.kci.go.kr

2005; Pym, Shlesinger & Jettmarová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번역물(translations) 분석에 중점을 두는 연구에서 벗어나 사회적 주체로서의 번역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필요성을 주창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번역사들의 가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자후기와 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기사에 대한 연구를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출판번역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전문 번역사의 역자후기를 통해 번역사가 번역이라는 행위나 자신에 대해 어떤 자기 이미지(self-image)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기로 한다. 이것은 번역사의 가시성(visibility), 즉 텍스트 내에서의 가시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시성(social visibility)과 연관되는 문제일 것이다. 번역에 대한, 혹은 번역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sociological approach)은 이와 같은 면에서 번역학 연구에 있어서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 왔던 번역주체, 다시 말해서 사람(persons)에 대한 연구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2. 번역사에 대한 연구

2.1 번역사와 번역사학

체스터만에 따르면 번역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3가지 하위 연구 분야로 이루어진다(2009). 첫째, 국제 시장에서 상품으로서의 번역물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상품으로서의 번역물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영어로 번역되는 번역물의 비율이 다른 언어로의 번역보다 현저히 낮은 현상을 지적한 베누티의 연구를 들 수 있다(Venuti 1995).

둘째 번역과정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데, 주로 품질평가 절차와 교정교열 과정, 팀 번역시 협동 등이 연구주제가 된다[2]. 마지막으로, 번역사에 대한 사회학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번역사의 지위, 근로조건, 번역사 협회, 번역사 네트워크 등을 연구 주제로 다룰 수 있다. 또한 번역사라는 직업에 대한 일반의 인식(보통 언론이나 문학작품에 노출됨) 뿐만 아니라 번역사 자신이 쓴 에세이, 인터

2) 선행 연구로는 이상원(2008)을 들 수 있다.

www.kci.go.kr

뷰, 역자 후기 등에 나타난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 등도 포함된다.

번역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의 공헌점은 번역 텍스트에서부터 인간 번역사로 관심을 전환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체스터만은 텍스트의 목적을 지칭하는 스코포스(skopos)라는 용어의 사용과 더불어 번역사의 개인적 동기를 가리키는 텔로스(telos)라는 용어를 소개한다. 텔로스에는 번역사들이 왜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주어진 텍스트를 번역하는지 등이 포함된다(Chesterman 2009: 16). 다시 말해서, 번역 텍스트의 목적이 아니라 번역사의 개인적 목적과 존재이유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조명된다는 것이다.

2.2 역자 후기[3]와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

역자후기는 전통적으로 곁텍스트(paratext)로 분류된다(Yoon 2009). 곁텍스트라는 개념은 프랑스의 문학이론가인 주네트에게서 기원하는데, 그는 역자후기를 "텍스트를 둘러싸고 그것을 연장하면서 텍스트를 소개하고 이것이 책의 형태로 수용되고 소비되는 것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지영래 & 박선희 2010: 243, Gérard Genette(1987) 재인용)"로 정의된다.

곁텍스트로서 역자후기는 원천텍스트의 독자이면서 번역 텍스트의 생산자인 번역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또한 역자후기는 번역 작업에 대한 소회, 번역 전략, 더 나아가서 원천 텍스트에 대한 서평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전현주는 역자후기를 역자가 자신의 존재를 노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보고 있다(전현주 2009). 그 자신, 전문 번역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인은 번역사의 글쓰기 실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역자후기 만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이종인 2008).

역자후기는 특정 번역텍스트에 대한 곁텍스트적 역할 뿐만 아니라, 번역이라는 작업 자체 혹은 번역사라는 직업에 대한 역자의 담론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바스넷은 역자후기나 번역서에 대한 번역자의 여러 담론은 "사회 전체가 번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Bassnet 1991: xiii-xvi). 지영래와 박선희(2010) 또한 해당 문화권의 번역상황과 시대 상황까지

3) 역서에 따라서 역자 후기가 아닌 역자 서문이 제시된 사례도 있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을 통칭하는 단어로 역자 후기를 사용하기로 한다.

www.kci.go.kr

도 역자후기를 통해 엿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며, 역자후기라는 텍스트 공간을 통해서 번역사가 직업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기 이미지(self image)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번역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미지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유통되는 번역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것을 번역사의 공적 이미지(public image)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역자후기를 통해 번역사의 자기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코스키넨의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의 실마리를 발견한다. 코스키넨은 번역사의 가시성을 텍스트적 가시성(textual visibility), 곁텍스트적 가시성(paratextual visibility), 텍스트외적 가시성(extratextual visibility)으로 구분하고 있다(Koskinen 2008). 텍스트적 가시성은 번역 텍스트에서 번역사가 사용하는 번역 전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번역사의 곁텍스트적 가시성은 번역사가 주어진 번역 텍스트에 관련해 생산한 모든 담론들, 예를 들어 역자후기, 역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외적 가시성은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을 가리킨다.

본 연구는 코스키넨의 연구에서는 분리되어 논의되었던 곁텍스트적 가시성과 텍스트외적 가시성의 접목 가능성에 주목하여, 곁텍스트로 분류되는 역자후기를 통해 번역사의 텍스트외적(사회적) 가시성을 조명해 볼 것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로 활용된 53편의 번역텍스트에는 문학 텍스트와 실용 텍스트가 골고루 섞여 있으며, 남성 번역사뿐만 아니라 여성 번역사의 번역 텍스트도 포함하여 한쪽 성별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모두 2000년 이후 출판된 번역서를 선택함으로써, 최근에 활동하는 번역사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다.

2.3. 자기 이미지와 공적 이미지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본 연구는 자기 이미지라는 개념이 심리학 분야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자기 이미지는 "'나는 누구인가' 혹은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개인의 느낌이나 생각"을 일컫는다(임승렬 2003).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www.kci.go.kr

> 각 개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과 사회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본인의 느낌이나 생각이 개인의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승렬 2003: 317, 밑줄 필자).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번역사는 사회로부터 기대되는 역할과 자질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에는 한 사회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브루디외에 의하면 공동체에 살고 있는 개인들은 아비투스(habitus)라는 무의식적인 구조를 모두 공유한다(Bourdiue 1984). 개인의 판단, 선택, 취향들은 표면적으로는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공동체의 규칙에 의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특정한 공동체에서 길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번역사들 사이에 공유되는 아비투스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는 다음의 2가지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번역사는 이와 같은 사회적 기대를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번역사는 이미 형성된 이미지에 대해 저항하고 전복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그동안 학계에서 번역사를 기술하는 용어(terms)를 정리함으로써 번역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간접적으로 나마 돌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번역사는 "그림자 같은 존재"(Bassnet 2002: 77), "익명의 존재"(Koskinen 2000: 60),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Hatim 2001: 52), "고립적이며"(Risku 2004: 190), "인정받지 못하며"(Vinay & Darbelnet 2002: 92), "주변적인"(Sela-Sheffy & Shlesinger 2008: 80)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번역사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입장은 베누티에게서 발견된다(Venuti 1995 & 1998). 그에 따르면 번역사는 문화적으로 주변인이며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고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번역자의 작업에 대해서도 인식이 부족하여 단순한 복사품 혹은 파생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번역사를 묘사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은 번역사와 번역사라는 직업군(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달리 말하면 번역사의 공적 이미지(public image)를 보여주고 있는 담론(discourse)들이다.

번역사에 대한 긍정적 담론 또한 물론 존재한다. 홀쯔-맨태리(Holz-Mänttäri,

www.kci.go.kr

1984)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으로서의 번역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번역사는 문제해결과 의사결정(problem-solving and decision-making)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문화적 중개자이며 의사결정자(cultural mediator & decision maker)”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Leppihalme 1997: 19). 스코포스 이론을 소개한 라이스(Reiss)와 페르메르(Vermeer)는 문화간 의사소통의 전문가로 번역사를 정의한다(Reiss & Vermeer 1984).

긍정적 사회상과 부정적 사회상의 혼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역사는 사회적 가시성이 낮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다(Dam & Zethsen 2009). 그렇다면 번역사들의 자기 인식, 자기 이미지는 어떠한지 다음 장에서 역자후기를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3. 역자 후기 분석

3.1. 번역사의 텔로스

역자후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은 번역작업에 대한 소회, 번역전략, 서평 등을 꼽을 수 있다.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번역작업을 직접 수행한 번역사로부터 생생하고 풍성한 뒷얘기를 듣기를 희망할 것이고, 이것은 독자에게 흥미로운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번역사는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번역사 자신이 왜 이 직종에 몸담고 있는지, 혹은 왜 그 서적을 번역하기로 결정했는지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한다.

> 예 1)
> 그럼에도, 여러 면에서 미국의 대표작가로 꼽히는 그의 작품이 우리나라에는 뜻밖에도 자주 소개되지 않아 갈증이 컸을 터인데, 이 소설로 목을 축이는 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작은 보람을 느낀다. (『에브리맨』 p. 191)

> 예 2)
> 번역 작가란 이름으로 10년도 넘는 세월을 지내는 동안, 믿어지지 않겠지

www.kci.go.kr

만, 책상 위에 일이 놓여 있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그만치 즐거웠고 한편으로 일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했다. 사실 단어 한나, 글 한 줄마다 읽어줄 이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p. 258)

예 1)과 예 2)에서 번역사는 새로운 작품을 국내 독자에게 소개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 또한 번역사로서의 애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독자와의 인간적인 소통과 공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자후기는 번역사가 원문이라는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스토리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해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즉, 전술한 바 있듯이 역자후기는 번역사가 자신의 텔로스를 전하는 공간이다 .

예 3)
그동안 다른 분들이 번역한 이 책의 번역판이 두세 곳에서 출간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나의 언어로 융의 세계를 독자에게 전하고 싶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1992년 미국에서, 내목을 죄던 무수한 일감을 저만치 밀어 두고 세 번째로 이 책의 번역에 착수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과 상징』 p. 518)

체스터만에 따르면, 텔로스는 번역사들이 왜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 혹은 왜 이 텍스트를 번역하고자 하였는지 등의 개인적 목적을 일컫는다 (Chesterman 2009). 위의 예를 보면, 이미 기존의 번역서가 존재함에서 불구하고 번역사 자신의 언어로 작품 세계를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개인적 희망과 그것을 성취한 보람이 번역사의 텔로스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자후기에는 해당 번역서의 전반적인 번역전략이 소개되기도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예 4)
우리 독자들은 '폭도'라는 말이 때로운 명예로운 별명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산전수전을 겪었다고 믿기 때문에, 옮긴이는 그런 점을 굳이 '검열'하려 하지 않았다. (『그레이트 게임』 p. 665)

www.kci.go.kr

위의 예문은 번역자가 원문에 쓰인 '폭도'라는 단어를 번역문에 그대로 직역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상기시키는 예문이다. 즉 해당 단어의 번역에 있어서 번역사의 개입 혹은 '검열'이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의 예 5)에서도 번역전략이 언급되었다.

> 예 5)
> 이 소설에 등장하는 범죄수사, 법의학, 피혁 무두질, 재봉, 곤충학등과 관련된 많은 전문 용어가 역자를 당혹케 했다. 일일이 현장에서 쓰이는 살아있는 우리말 역어를 찾아다녀야 마땅하나 역자는 사전적 의미만을 쫓는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장의 술어가 오히려 그런 술어에 버릇들지 않은 독자에게 아주 낯설어 보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양들의 침묵』 p.10)

위의 예에서 번역사는 독자들에게 낯설지 않은 번역전략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낯설지 않은 번역, 즉 독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번역 전략이 채택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번역서가 매끈하게 읽힐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번역사와 출판사와의 역학관계

본 연구의 대상인 된 역자후기에서는 국내 출판번역 시장의 현황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비실용서의 역자후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예 6)
> 1985년 한 해는 내가『장미의 이름』때문에 초주검이 된 해다. 출판사에 원고 팔기는 번역 작업 자체보다 어려웠다.『장미의 이름』은 십여 군데 대형 출판사에서 차례로 거절을 당한 뒤에 열린책들에서 날개를 접게 되었는데, 뒷날 이 연착은 대단히 행복한 연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인간과 상징』 p. 517).

> 예 7)
> 그로부터『인간과 상징』은 완료된 재교지 상태에서 근 10여년 동안 10여

www.kci.go.kr

> 개의 출판사를 떠돌면서 차례로 딱지를 맞았다. 그동안 다른 분들이 번역한 이 책의 번역판이 두세 곳에서 출간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나의 언어로 융의 세계를 독자에게 전하고 싶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인간과 상징』p. 518).

위의 예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 출판시장에서 번역사와 출판사 사이에 작동하는 역학관계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번역사는 출판사로부터 선택되어지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거절을 당한', '딱지를 맞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위의 번역사는 이와 같은 거절과 딱지의 경험을 훌륭한 번역서의 탄생을 위한 통과의례쯤으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역시 우리 사회에서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다수의 번역사들이 약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번역사는 물리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고립적 상황에서 작업을 수행한다(Hermans & Lambert 1998). 결과적으로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번역하고자 하는 서적을 선별하는 문제에서부터 번역 전략에 이르기 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은 번역사 개인의 경력과 입지가 강화되면 변화하게 된다. 출판사/편집자와 번역사 사이의 역학관계에 관한 허만스의 연구를 보면, "경력과 입지를 갖춘 번역사는 신참 번역사에 비해 출판사의 희망사항이나 제안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는다"고 제시되어 있다(Hermans 1996: 35).

3.3. 번역사의 자기 인식

번역(학)에는 평가와 관련된 용어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오역(mistranslation)', '번역품질(translation quality)', '번역평가(translation assessment)' 등과 같은 용어들은 번역물이 평가의 대상이 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결국 번역사는 번역물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출판사에 의해, 이차적으로는 독자에 의해 평가를 받는 입장에 서게 된다. 물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언제나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번역자로서는 평가에서 자유롭거나 초연할 수는 없을 것이다.

www.kci.go.kr

예 8)
늘 평가를 받는 입장에만 있다가 평가를 하는 입장에 서게 해주었으니 나로서는 특별히 가르친 것은 없어도 의미있는 분출의 기회만큼은 제공했던 셈이다. (정영목 2009: 152)

위의 예문은 번역사가 대학에 번역과목을 출강하면서 느낀 소회를 담고 있다. 번역사는 자신을 '늘 평가를 받는 입장'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학강의를 통해 평가자가 된 상황의 역전을 '의미있는 분출의 기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예 9)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을 생각할 때는 자기비하적인 면과 과대망상적인 면이 공존한다고 한다. 번역에서야 물론 자기비하적인 면이 클 터인데, 사실 굳이 스스로 비하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서 비하해준다. 반대로 과대망상적인 면을 찾기 어려운데, 내 경우에 그런 면을 찾아보자면 바로 번역을 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될 것이다. (정영목 2009: 157)

위의 예 9)에서 번역사는 자신의 일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남들이 알아서 비하해준다'라는 표현과 함께 '자기비하적인 면이 클 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번역사가 자신의 일에 대해 자기비하적인 면이 강하다고 토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팀은 번역사는 "겸손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modest, self-effacing)" 존재라고 언급한 바 있다(Hatim 2001: 52). 사실 우리 사회에서 번역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번역을 "진짜 직업(true profession)"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이 역자후기를 통해 확인된다(Choi & Lim 2002: 634).

3.4. 번역사의 눈에 비친 원저자

번역사는 텍스트를 통해 원저자를 대부분의 독자보다 농도깊게 만난다. 역자 후기를 통해 본 한국의 번역사는 원저자에 대한 인간적 감정을 전반적으로 솔직하게 노출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번역사에게 원저자는 존경, 동일

www.kci.go.kr

시, 선망, 인간적 우정의 대상이며, 이와 같은 다양한 감정은 역자후기라는 공간을 통해 담백하고 진솔하게 표현된다. 대부분의 경우, 원저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번역사는 텍스트를 통해 원저자와 교감하고 공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10)
좋은 책 번역하고 나면 두 가지 기분이 들어요. 난 왜 이만한 글을 못 쓸까 하는 자괴감과 이만한 책을 내가 번역해서 내놓았다 하는 자긍감. 번역을 하면서 대리만족하는 것도 있죠(김석희, 동아일보 인터뷰).

예 11)
나는 왕을 알현하러 들어가는 변장의 병사가 된 느낌으로 크레타를 들어갔다. 나는 향토 출신 작가의 이름을 수도의 공항 이름으로 삼은 크레타인들에게 경의를 표했다(『그리스인 조르바』 p. 501).

예문 10)의 번역사는 자신이 작가에서 번역사로 변신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그가 좋은 작품의 번역을 통해 대리만족을 경험했다는 고백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예문 11)에서는 번역자가 원저자에게 가지는 존경과 애정의 정도를 느낄 수 있다.

원저자에 대한 인간적 이끌림은 때로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원저자에 대한 아량과 배려의 요청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아래의 경우, 번역사는 혹시 독자들로부터 발생할 지도 모르는 비판으로부터 원저자를 보호하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예 12)
더불어 이 책이 약간 지나치게 현학적이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독자들은 그 점 역시 젊은 패기 때문인 것으로 너그럽게 보아주시기를, 저자를 대신해서 – 저자가 전혀 부탁한 바 없지만 – 부탁드린다(『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p. 275).

www.kci.go.kr

4. 결론

스코포스 이론이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 존재했던 기존의 위계 질서를 전복하고 번역문의 기능과 목적에 우선순위를 둔 혁명적 이론이었다면, 번역사학(traslator studies)은 이제 텍스트는 "부차적(secondary)"이며 번역사가 "우선적(primary)"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혁신적 주장을 내놓고 있다(Chesterman 2009: 15).

그간 텍스트를 통해, 혹은 번역전략을 통해 번역사의 의도를 더듬어 보는 수준에서 번역사를 간접적으로 논의하였다면, 번역사학은 번역사의 개인적 동기, 목적, 의도, 존재이유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스코포스에서 텔로스로의 전환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번역학 연구는 번역 결과물이나 과정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 왔으며 번역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를 연구 주제로 삼은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결과를 제안하고자 한다.

역자 후기는 단순히 번역사의 곁텍스트적인 가시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시성 또한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자 후기와 번역자 에세이, 신문 기사를 통해 번역사의 눈으로 우리나라의 출판시장 현황, 자기 인식, 원저자와의 관계 등을 조망하였다.

번역후기는 번역자의 텔로스(telos)가 제공되는 공간이다. 번역자의 텔로스는 번역작업의 소회, 서평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제시된다. 또한 번역사와 출판사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출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가 취약한 번역사의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번역사의 자기 인식, 즉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 주제에 있어서 번역사는 자신에 대해 "평가를 받는 입장", "자기비하적"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사회가 번역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는 역자후기라는 간접적인 방식 뿐만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방식, 예를 들자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인터뷰로도 분석이 가능하다(Dam & Zethsen 2008; Sela-Sheffy & Shlesinger 2008). 앞으로 이와

www.kci.go.kr

같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본 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원 (2008)「문학번역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번역학연구』9(2): 149-66.

이종인 (2008)「역자후기란 얼마나 중요한가」,『기획회의』230: 28-35.

임승렬 (2003)「유치원교사의 자아상 연구 검사도구 개발과 자아상 분석」,『열린유아교육연구』8(2): 315-32

전현주 (2009)「역자의 (불)가시성-역자후기를 중심으로」,『통번역학연구』12(2): 211-29.

정영목 (2009)「강의노트: 번역 강의 노트」,『안과밖』27: 148-61.

지영래 & 박선희 (2010)「번역본에서의 컬텍스트의 위상:『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을 중심으로」,『번역학 연구』11(3): 247-76.

Bourdieu, Pierre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English Translation by Richard Nice), Harvard University Press.

Chesterman, Andrew (1998) 'Causes, Translation, Effects', *Target* 10(2): 201-30.

Chesterman, Andrew (2006) 'Questions in the sociology of translation', in Ferreira Duarte, Joao Assis Rosa & Teresa Serury (eds), *Translation Studies at the Interface of Disciplin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9-27.

Chesterman, Andrew (2009)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or Studies', *Hermes* 42: 13-22.

Choi, Jungwha & Hyang-Ok Lim (2002) 'The Status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in Korea', *Meta* 47(4): 627-35.

Dam, Helle V. & Karen Zethsen (2008). 'Translator Status. A study of Danish company translators', *Translator* 14(1): 71-96.

Dam, Helle V. & Karen Zethsen (2009) 'Translation Studies: Focus on the Translator-Introduction to the Thematic Section', *Journal of Language*

www.kci.go.kr

and Communication Studies 42: 7-12.

Genetter, Gérard (1987) *Seuils*, Paris:Édition 여 Seuil.

Hatim, Basil (2001) *Teaching and Researching Translation*, England: Longman.

Hermans, Johan & Hosé Lambert (1998) 'From Translation Markets to Language Management; The Implications of Translation Services', *Target* 10(1): 113-32.

Hermans, Theo (1996) 'Norms and the Determination of Translation. A Theoretical Framework,' in Román Álvarez & M. Carmen-África Vidal (ed)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Topics in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5-51.

Holmes, James (1972/2000)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172-85.

Koskinen, Kaisa (2000) 'Institutional Illusions: Translating in the EU Commission', *The Translator* 6(1): 49-65.

Koskinen, Kaisa (2008) *Translating Institution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Leppihalme, Ritva (1997) *Culture Bumps: An Empirical Approach to the Translation of Allusion,* London: Multilingual Matters.

Pym, Anthony, Miriam Shlesinger and Zuzana Jettmarová (eds) (2006) *Sociocultural Aspects of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Reiss, Katarina and Hans J. Vermeer (1984)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Risku, Hanna (2004) 'Migrating from Translation to Technical Communication and Usability', in Gyde Hansen, Kirsten Malmkjær & Daniel Gile (eds) C*laims, Changes and Challenge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81-95.

Sela-Sheffy, Rakefet (2005) 'How to Be a (Recognized) Translator. Rethinking Habitus, Norms, and the Field of Translation', *Target* 17(1): 1-26.

www.kci.go.kr

Sela-Sheffy, Rakefet & Miriam Shlesinger (2008) 'Strategies of image-making and status advancement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as a marginal occupational group. A research project in progress', in Anthony Pym, Miriam Shelginger, & Daniel Simeoni (eds) *Beyond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Investigations in homage to Gideon Toury,* Amsterdam/Philadephia: John Benjamins, 79-90.

Snell-Hornby, Mar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Thomson-Wohlgemuth, Gabriele (2004) 'A Socialist Approach to Translation: A Way Forward?', *Meta* 49(3): 498-510.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Vermeer, Hans (1996) *A Skopos Theory of Translation,* Heidelberg: TextconText Verlag.

Yoon, Sun Kyoung (2009) 'The Politics of British Translator's Prefaces: with an analysis of Newman's and Richards' prefaces to Homer's Iliad',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Studies* 7(1): 157-81.

www.kci.go.kr

〈별첨: 분석대상 텍스트 목록〉

번호	이름	서명	출판사	년도
1	이종인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2010
2		가르칠 수 있는 용기	한문화	2008
3		말을 듣지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가야넷	2005
4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	시대의 창	2005
5		사상의 향연	시대의 창	2005
6	공경희	우리는 사랑일까	은행나무	2005
7		마시멜로 두 번째 이야기	한국경제신문사	2007
8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열네번의 인생수업	살림	2010
9		천국에서 만난 다섯사람	살림	2010
10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해냄출판사	2004
11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	해냄출판사	2008
12		여자 너 스스로 멘토가 되라	해냄출판사	2002
13		인생	창해	2002
14	형선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황금가지	2009
15		선물 (The Present)	랜덤하우스	2003
16		선택	청림출판	2005
17		스피릿(부자를 만드는 영혼의 힘)	디자인하우스	2004
18		장쩌민	한국경제신문사	2002
19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김영사	2004
20		풀뿌리 리더십	을유문화사	2005
21		벌거벗은 경제학	황금가지	2003
22	김석희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 (하)	한길사	2009
23		프랑스 중위의 여자 (상)	열린책들	2009
24		모비 딕	작가정신	2010
25		행복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 3천 년의 탐구 마침내 찾은 행복의 연금술	휴머니스트	2010

www.kci.go.kr

26		꽃들에게 희망을	시공사	2006
27		신비의 섬 1	열림원	2006
28	이윤기	그리스인 조르바	열린책들	2008
29		신화의 힘	이끌리오	2007
30		천국의 열쇠	섬앤섬	2005
31		장미의 이름 (하)	열린책들	2006
32	정영목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청미래	2007
33		눈먼 자들의 도시	해냄출판사	2009
34		로드(THE ROAD)	문학동네	2008
35		눈뜬 자들의 도시	해냄출판사	2007
36		에브리맨	문학동네	2009
37		책도둑	문학동네	2008
38		영원한 이방인	나무와 숲	2003
39		그레이트 게임: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숨겨진 전쟁	사계절	2008
40	안진환	슈퍼 괴짜경제학: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괴짜 천재의 실전경제학		
41		넛지: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리더스북	2009
42		포지셔닝: 잭 트라우트와 앨 리스의 마케팅 클래식	을유문화사	2002
43		괴짜 경제학	웅진지식하우스	2007
44		마케팅 전쟁	비즈니스북스	2006
45		전쟁의 기술	웅진지식하우스	2007
46		빌게이츠@생각의 속도	청림출판	2006
47		마인트 세트	비즈니스북스	2006
48	안정효	백년 동안의 고독	문학사상	2005
49		산의 영혼	수문출판사	2009
50		더 컬러 퍼플	청년정신	2007
51		전쟁과 신부	열린책들	2008
52		가아프가 본 세상 2	문학동네	2002

www.kci.go.kr

[Abstract]

A Research on Translators' Self-Image through Translators' Epilogues: A Perspective from Translation Sociology

Kim, Young shin
(Anyang University)

The Scopos theory, with its priority on the functions and purposes of translation texts, overthrew a deep-rooted hierarchy between Source Texts and Target Texts. Translator studies now presents another ground-breaking insight, arguing that texts, both STs and TTs, are secondary and the primary interest should be directed to translating agents, human translators.

Given the relative invisibility of translators as an occupation, they have hardly been a focus of academic research. Based on such realization, the current study aims to analyze the self-image as perceived by translators, drawing on translators' epilogues and interviews with the media. Translator's epilogues, as text types, are unique, since they are the types of discourse where translators can legitimately become "authors". The research into such unique texts will throw some enlightening light on such themes as translator visibility and translator self-image.

We have seen that translators' epilogues can provide the teloi of translators, that is, why they have decided to translate the given text or why they are involved in the field of translation. Translator's epilogues also provide a space when translators discuss translation strategies, reveal power relations with publishers, express their self image, and even exhibit personal feelings towards authors. The findings of the study appear to support the general picture of translators as a relatively low prestige profession in the Korean society.

www.kci.go.kr

▸ Key Words: translator self-image, translators' epilogues, translator studies, telos,

김영신
안양대 관광영어통역전공 조교수
shiny@anyang.ac.kr
관심분야: 번역학, 번역사회학

논문투고일: 2012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15일

www.kci.go.kr